

전주시, 폭염 피해 저감대책 추진

주의보 발령 시 팔달·충경로 등 살수작업

전주역·한옥마을 등 22곳에 얼음 비치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폭염주의보 발령 시 주요 보도에 얼음을 비치하는 등 폭염대비 안전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전주시는 오는 9월까지 폭염주의보(33°C이상)와 폭염경보(35°C) 발령 시 시민들의 무더위를 씻어줄 '도로 쿨(Cool)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시는 일일 최고기온이 33°C 이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살수차를 가동해 팔달로와 기린대로, 백제대로, 충경로, 안덕일로 등 주요노선에 대한 살수작업을 실시, 도로의 온도를 낮출 계획이다.

또한 전주역과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한옥마을, 서부신시가지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22곳에는 지나가는 시민들의 무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얼음이 비치된다.

얼음 비치장소는 △한옥마을 오목교 옆 △서부신시가지 △오거리문화광장 △경교 앞 △객사 앞 △은행로 팔각정 앞 △풍남문 광장 △오목육교 앞 통일광장, △안행교사거리(이상 완산구)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동산동 농협 △송천동 우체국 △팔복동 주민센터 △덕진광장 △전북대 구정문 △모래내시장 △인후초교 사거리 △안골광

장 △호성동 유원아파트 사거리(이상 덕진구) 등이다.

특히 일일 최고기온이 35°C이상 치솟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콜 서비스 대상노선이 송천로와 태조로, 은행로, 서원로 등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경로당과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냉방기가 갖춰진 관내 419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 폭염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및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방문 건강관리사업 전문 인력과 통장 등 2000여명의 재난도우미를 지정해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여름철 폭염대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안전담당관, 노인복지부서, 보건

소, 건설과 등 관련부서와 합동 T/F팀을 구성해 폭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폭발 가능성이 있는 가스·석유시설 등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와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여름철 농작물 및 가축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 및 대처요령 등 현장방문교육도 전개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폭염주의보나 경보 발령 등 폭염 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온도가 높아지는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고,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물 섭취 등 건강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덕진구,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 강화

덕진구(구청장 정태현) 민원봉사실에서는 18일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전국 어디서나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주소지에서 도장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인감보다 간편하고 대리발급 사고위험 없이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정착을 위해 50% 감면된 발급수수료 인하시한이 2017년 12월 21일까지 연장돼 통당 발급비용이 300원으로 인감증명서(통당 600원)보다 저렴하다.

덕진구 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실장은 "앞으로 민원인들에게 간편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이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인감증명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친숙한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음식점 침입 게임머니 충전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단독(김선용 부장판사)는 18일 심야에 음식점에 침입해 업소 전화기로 게임을 걸어 게임머니를 충전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9일 밤 11시8분께 전주의 한 중국음식점 창문

을 열고 들어가 업소 전화기로 게임회사에 전화를 걸어 1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2014년 11월 30일부터 2주 동안 전주시내 음식점 2곳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게임머니 45만원어치를 충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주 기자

“장수 풍력발전개발 철회를”

전북환경단체 성명 발표

전북지역 환경단체와 장수군 지역주민들이 장수 장안산 대규모 풍력발전 개발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녹색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민간 에너지기업이 지난 5일 장수 장안산에 75MW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는 장수 풍력발전기 사업허가 신청서를 즉각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산자부가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민간 에너지기업은 장안산의 기후적 특성이 풍력발전 단지 개발 최적지로 보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녹색연합은 "금남호남정맥의 종산인 장안산은 논계 생가와 사당이 있는 청정생태지역으로 매년 수만명의 등산객이 찾고 있다"며 "장수군도 장안산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군립공원 지정·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안산은 백두대간과 호남정맥, 금남정맥을 연결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며 "풍력발전 사업부지 전역이 야생동물보호 구역이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이곳에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국토의 건강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재 기자

특히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을 통해 사업대상지의 대부분을 이미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며 "해당지역에 풍력발전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면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하는데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이처럼 국가의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간 에너지기업이 추진하는 장안산 풍력발전기와 민가와 거리가 가까워 발전 소음과 저주파 피해를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불안도 크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때 거주지로부터 1km 이상 이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데, 장안산 풍력발전 개발 사업 부지와 민가는 350~600m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다"며 "풍력발전 단지에 갇혀 살게 될 지역주민들의 소음과 저주파피해는 물론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장수군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장수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도 지난 13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지역 장수에 풍력발전개발 사업이 이뤄지면 장안산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될 것이 분명하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최용득 장수군수도 장안산 풍력발전 단지 사업과 관련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자 풍력발전 개발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

전주시의회는 18일 제10대 전주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역대 의장단 및 유관기관·단체장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2주년 기념식을 열고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명지 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는 진정한 대변인이 되자"고 말했다.



전주시의회는 18일 '제10대 전주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은 개원식 후 전주시의회 의원들과 역대 의장단 및 유관기관·단체장 등이 의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트서 다른 손님 명품가방 훔쳤다 버린 40대 여성 입건

대형마트에서 다른 손님이 놓고 가 방을 훔쳤지만 명품가방인 것을 알고 겁이나 버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8일 대형마트에서 쇼핑카트에 놓인 가방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53분P 전주시 완산구 한 대형마트에서 B(36)씨가 쇼핑카트에 놓고 간 명품가방(시가 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쇼핑카트를 반납하던 중 가방을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훔친 가방이 너무 비싼 걸 알게 됐지만 주인에게 다시 돌려줄 용기가 없어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인진수 기자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 전시 공간 설치

역대 수상자 181명 전시... 효열장 등 7개 분야 선정

전주의 명예를 높이고 전주발전에 기여한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의 얼굴과 업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전시공간이 마련됐다.

전주시는 시청4층 회의실 벽면에 역대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 181명의 사진과 성명, 수상분야 등을 전시하는 전용 공간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민의 장은 교육과 문화, 체육, 산업 등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쏟은 시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

주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런 상으로 손꼽힌다. 현재, 효열장과 교육장, 문화장, 노동·산업장, 공익장, 애향장, 체육장 총 7개 분야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시민의 장 수상자 50여명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수상자들과 전시공간을 함께 관람하며 참석자들이 시민의 장 수상자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발전에 기여해온 시민의 장 수상자회(회장 최찬욱)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

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지난 1963년부터 50여년이 넘는 전통을 이어오며 시민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들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시청내 수상자들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들은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주요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시영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 수상자로서 지속적인 예우를 받고 있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